

식민지시기 ‘현모양처’론과 ‘모더니티’ 문제*

홍 양 희**

머리말

- I. 제국과 민족의 젠더론: 현모양처
- II. 가족내 관계성의 근대적 전환: 현모양처론
- III. 현모양처라는 욕망과 신여성의 분열적 위치
- IV. 모더니티로서 본질주의: 현모양처의 ‘전통’화 맺음말

요약

이 연구는 현모양처론이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작동하던 다양한 층위의 모더니티들과의 경합, 그들과의 혼종을 통해 재구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현모양처론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의해 점령당한 근대적 시공간에서 구성된 역사적 현상으로 대상화하는 동시에, 식민지 조선에서 모더니티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유되는지를 구명하기 위한 작업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모더니티의 본질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5).

**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 연구교수

투고일: 2010년 8월 31일

심사일: 2010년 9월 3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15일

하였다.

한말에 처음 등장한 ‘현모양처’ 담론은 제국의 헤게모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응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문명화로 명명되던 서구적 모더니티에 그 기원이 있는 그것은 처음부터 자기 완결적인 논리, 그 자체로 작동하기 보다는 식민지시기 내내 자신의 논리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역사적 과정을 함축하고 있었다. 현모양처는 식민지 조선에서 작동하고 있던 모더니티들의 흐름들과 경쟁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에 그들을 선택적으로 차용하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흐름들의 혼종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현모양처라는 모더니티의 관철은 두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성적 본질론이라면 다른 하나는 여성은 과거부터 원래 그러하였다는 문화 본질론이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모더니티가 ‘전통’에 기대는 것이다. 즉 과거라는 역사적 시간 속에 존재하던 사건을 현재로 불러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모더니티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질주의는 동질화의 전형에서 벗어난 인간을 끊임없이 타자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젠더 경계를 만들고 그것을 자연화하고 본질화하는 방식은 모더니티가 작동하는 주요한 입지점이자 국민/민족 국가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주요한 기반이었다.

주제어 : 현모양처, 모더니티, 젠더, 전통, 본질주의

머리말

21세기 현대 한국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은 현모양처를 꿈꾸지는 않는다. 그들의 뇌리에 현모양처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적 여성 이데올로기라는 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별역할 분담을 고착화시키는 현모양처의 담론적 효과는 여전히 강고하다. 한국 지폐 도안의 유일한 여성 인물이 현모양처의 표상인 신사임당으로 선정된 것도 그것을 반증하는 일례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것은 신현모양처론으로 변용되어 여전히 강한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과거 전통에 기대는 본질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모양처 담론은 한국에서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시작된 “문명화”, 즉 계몽이라는 지식의 회로를 통해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모더니티라는 화두가 식민주의의 통로를 따라 전해진 서구적 근대성의 충격과 그에 대한 탈식민적 대응과정에서 비롯되었듯이,¹⁾ 현모양처 역시 문명화로 명명되던 서구적 모더니티의 산물이었다. 즉 현모양처는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현모양처 여성담론은 젠더,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모더니티의 문제가 얽혀있는 지점이

1) 임지현, 2000, 「전지구적 근대성과 민족주의」, 『역사문제연구』 제4호.; 다음은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대표적인 연구서이다. Tani E. Barlow, 1997, "Introduction: On 'Colonial Modernity'", Tani E. Barlow ed., *Formations of colonial modernity in East Asia*, Duke University Press. :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 2001, *Colonial Modernit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신기욱·마이클 로빈스 엮음, 도면희 옮김, 2006,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현모양처는 서양과 동양, 중심과 주변, 근대와 전통이 착종되어 만들어진 식민지 조선의 역사적 산물이며, 식민지 조선의 시공간에서 작동했던 모더니티의 하나였다.

현모양처가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여성상이라는 일반론적인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연구들이 근 10여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주목하였다. 현모양처의 근대적 성격,²⁾ 신여성과 근대성,³⁾ 현모양처론을 보급한 여자 유학생,⁴⁾ 가족의 근대적 변화와 주부 담론의 형성,⁵⁾ 양처현모와 주부가 규범적 신여성상으로 재창출되는 과정,⁶⁾ 현모양처론의 신여성 담론과의 경합⁷⁾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와중에 현모양처론은 근대성과 전근대성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현모양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근대적 성격 및 전통적 성격이 변갈아 가며 강조된 여성관이었기 때문에 이를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⁸⁾

사실상 식민지시기 현모양처가 담론화되는 방식을 보면 유교의 여성 모랄과 동일시할 수 없을 뿐더러, 완전히 서구적 근대성 그 자체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의 논의대로 현모양처론은 전통성과 근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보다 이는 현모양처론이 가진 모더니티의 다층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말에 일본을 통해 수입된 현모양처라는 용어는 그 용어의 쓰임으로 인해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들

2) 홍양희, 2000, 「현모양처론과 식민지 ‘국민’ 만들기」, 『역사비평』 52, 역사비평사.
3) 김경일, 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4) 박선미, 2005, 『근대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5) 김혜경, 2006,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6) 김수진, 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명.
7) Hong, Yang-hee, 2008, “Debates about ‘A Good Wife and Wise Mother’ and Tradit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1-4,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8) 가와모토 아야(川本綾), 1999, 한국과 일본의 현모양처 사상, 심영희 외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

의 현실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처음부터 자기 완결적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보다는 다양한 흐름들의 선택적 차용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작동하고 있던 다양한 모더니티들, 전통과 모더니티, 그들 사이의 경합과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혼종적 모더니티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모양처를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된 다양한 모더니티의 흐름들 속에서 구성된 여성 담론으로 대상화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에서 현모양처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담론화 되기 시작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현모양처가 유교적 여성관과 어떠한 변별성을 가지며 논의되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여성이 가족과 맺는 관계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성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끝으로 신여성들이 추구한 현모양처는 궁극적으로 식민지 조선 사회에 어떠한 과열음을 내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본질화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탈식민 연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본질주의를 경계함과 동시에 고유한 전통으로 회자되는 문화 본질주의 역시 모더니티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모더니티 논의에 대한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I. 제국과 민족의 젠더론: 현모양처

한국 사회에서 담론화되기 시작한 현모양처는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파생물이었다.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한 민족주의적 계몽담론이 그것이다. 개항 이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으며, 그 수단으로 문명

개화가 논의되었다. 당시 현실에서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 더욱이 러일전쟁 이후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후에 그것은 더욱 절박하였다. 존립 위기에 놓인 국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이 모색되면서 문명개화는 한말 지식인의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 당시 그들이 열망한 문명은 19세기 이후 서양 제국주의 열강이 전세계적 지배망을 구축하면서 그 세력의 바탕이 된 서양의 근대 문명을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는 개념이었다.⁹⁾ 문명개화라는 용어로 회자된 서구적 모더니티의 달성은 조선 지식인들에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는 한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다. 특히 서구적 근대화를 재빨리 이룩한 일본은 극복의 대상이자 동시에 따라 배워야 할 하나의 모델이었다. 일본의 부국강병은 단지 군사력만이 아닌 정치, 경제, 문화적인 근대화, 즉 문명개화로부터 나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군사, 정치적인 힘을 배경으로 서양이 동양을 압도하고, 서구화된 동양인 일본이 청일·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국의 계몽 지식인들에게 서구 문명은 보편 문명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¹⁰⁾ 당시 일본은 동양에서 서구적 모더니티를 체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

일본에 의해 전유된 서구적 모더니티가 조선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05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동경에서 발간되어 일본의 근대 문명을 한국에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 『태극학보』의 논설은 부강한 국가의 건설이 ‘국민’의 양성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국민으로 국민의 책임을 盡竭해야 국가로 亨여금 부강발달의 域

9) 함동주, 2006,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국식민론과 식민주의적 문명론, 『동양사연구』 94, 177~178쪽.

10) 김진숙, 2004, 『독립신문』·『민일신문』에 수용된 ‘문명/야만’ 담론의 의미 층위, 『국어국문학』 136, 321쪽.

에 進케 肅은 국가에 對한 義務며 (중략) 金일의 不완전한 社會상태로 呼여 金 점차 進化 呼야 完美의 域에 進케 肅은 社會에 對한 義務”였다.¹¹⁾ 이들이 서구적 문명의 실현을 주창하는 계몽의 언어는 주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갈파하는 국가 지상주의에 포박되어 있었다.¹²⁾ 국민의 의무를 잘하기 위한 전제가 교육이었으며, 백성을 국민으로 재탄생시키는 기능을 한 것이 바로 근대 교육이었다.

이는 여성교육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명화된 나라들과 같이 근대적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주창되었고, 일본의 근대적 여성교육 이념인 ‘현모양처’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¹³⁾ 1906년 5월 독립협회원을 비롯한 계몽운동가들에 의해 세워진 양규의숙 설립 취지문과 『태극학보』의 논설은 여성교육과 현모양처,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華族及士庶 女子를 募集하여 維新에 學問과 女工에 精藝와 婦德賢哲을 教育하여 賢母良妻의 資質을 養成完備하여 出類拔萃에 共駕于文明之界하

-
- 11) 張膺震, 「人生的 義務」, 『태극학보』 제2호, 1906년 9. 24, 20쪽.
 12) 정선태, 2009, 「근대 계몽기 ‘국민’ 담론과 ‘문명국가’의 상상」, 『어문학논총』 제28집, 69쪽.
 13) 일본에서 여성교육은 1899년에 고등여학교령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등여학교령의 산파인 樺山資紀는 1899년 7월에 고등여학교령 제정 이유를 “건전한 중등사회는 단지 남자교육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賢母良妻와 더불어 家를 다스림으로써 사회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여학교는 賢母良妻될 만한 소양을 행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優美高尚한 기풍, 溫良貞淑한 자성을 함양함과 더불어 중인 이상의 생활에 필요한 학술 기예를 知得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1901년에 취임한 菊池大麓文相은 여학교 교육의 목적을 良妻賢母主義라고 규정하여, 그동안 ‘현모양처’와 ‘양처현모’가 혼용되던 이들 용어를 양처현모로 정착시키기 시작한다. 그 후 ‘양처현모’는 일본 여성교육의 정통적 목표이념이 되었다(樺山資紀, 1899. 7. 25, 樺山文相地方視學官會議演說, 『教育時論』, 22~23쪽. 深谷昌志, 1981, 『良妻賢母主義の教育』, 黎明書房, 155~156쪽 재인용).

고 勸精進就에 不立于仁隣之後호리니 此爲本塾之趣意也라¹⁴⁾

一小兒의 將來 運命은 其母의 行爲에 在호며 一國民의 富強도 其 國民의 母에 在호다 호며 又曰 國民의 精神과 習慣과 偏僻과 特質과 德性이 各 其 母一身에 在호다 호니 此는 吾人도 經驗自覺호 者라. 我東方에 偉聖孟子도 其母의 三遷之敎가 아니면 엇지 其名이 至今까지 赫赫不滅호 줄을 期호엿스리오. 然則 自古及今토록 偉人賢士의 盛名은 다 | 其 母親의 善良호 指導와 家庭教育의 起因造成호 者 | 實노 不少호도다. --- 家庭에 敎育을 完美코져 호면 不可不 此에 主務되는 女子의 敎育을 急히 發達호야 賢母良妻를 造成호에 在호도다.¹⁵⁾

“문명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여성을 교육시켜 현모양처를 양성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그렇다면 현모양처와 문명화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문명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의 문명화는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문명화에 의해 달성된다. 국민이 문명화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의 담당자이자 국민 양성에 책임이 있는 어머니가 문명화되어야 한다. 문명화된 어머니는 현모양처이다. 현모양처는 여성교육에 의해 양성될 수 있다. 따라서 “녀즈들을 교혹시키지 아니호면 이는 장려의 나라 사회를 멸망식히는 것과 다름이 업술지라. (중략) 장려 문명의 기초를 맞춘 부인의 즉분을 잘 짓히게 호는 것”¹⁶⁾이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사로 그 의미가 부여되었다.

문명론적 입장에서 제기된 현모양처론은 식민지 이후에도 조선의 지식인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민족 계몽의 연장선에서 현모양처 양성을 위

14) 雜報, 『大韓每日申報』, 1906. 5. 9.
15) 張啓澤, 『家庭教育』, 『태극학보』 제2호, 1906. 9. 24, 11~12쪽.
16) 金洛泳, 『녀즈교혹』, 『태극학보』 제1호, 1906. 08. 24, 41쪽.

한 여성 교육의 필요가 주장되었기 때문이다. 딸을 가진 아버지들에게 “再思三省하고 여아교육을 勿怠하여 후일 賢母良妻가 되어 행복적 가정을 조직하고 문명적 가정을 조성하여 悲境에 勿陷케 할지어다.”¹⁷⁾ 가정의 문명화라는 측면에서 여성교육의 필요가 역설되었다.

다른 한편, 식민주의 또한 현모양처 담론을 유포하는 하나의 통로였다. 현모양처라는 근대적 젠더 규범은 제국 즉 식민주의의 헤게모니에 의해 제도교육을 통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현모양처 교육은 조선총독부의 공식적 여성교육 이념이 되었다. 물론 이것은 식민지 동화주의라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었다.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진운이 여자의 인격에 의해 성패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신동포를 동화하여 제국 미증유의 대성사의 유종의 미는 신동포 중에서 품성과 인격있는 현모양처의 출현에 의해 성취된다.”¹⁸⁾ 것이다. 여성교육을 통해 조선인의 가정을 동화시킴으로써 조선인과 일본인의 감정적 융합을 영구히 하겠다는 논리이다.

문명화가 조선사회를 변혁시키는 지배적인 인식틀로 재배치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기존 질서들이 부정되기 시작하였다.¹⁹⁾ 즉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새시대의 신문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명화라는 사명에 의해 제기된 현모양처 역시 과거 한국의 생활방식을 열등한 것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그 당위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우리난 舊日 封鎖主義 內房主義 無教育主義에서 뛰어나와서 教育하여야 합니다. 우리 女息으로 하야곰 良妻되고 賢母되게 하여야 합니다. 女子의 教育은 이 良妻賢母되게 하난 것이 最大한 目的이외다. 보시오 自古로 英雄의 母가 英雄이 아니며 英雄의 妻가 英雄이 아닌 자 잇습내가? 그런고

17) 조동식, 「여자교육의 급무」, 『청춘』 14호, 94쪽.

18) 成瀬甚藏, 「朝鮮併合と女子教育」, 『教育實驗界』, 1911. 1. 5, 88쪽.

19) 김진숙, 2004, 『독립신문』·『미일신문』에 수용된 ‘문명/야만’ 담론의 의미 층위, 『국어국문학』 136권, 338~345쪽.

로 女子를 不可不 教育지안이지 못하난 同時 그 父母난 반다시 이 良妻賢母되게 한다난 것을 忘却하여서난 안이 되고 教育을 受하난 自身이 또 반다시 良妻賢母된다 하난 것을 沒覺하여서는 안이 되난 것이 외다.²⁰⁾

과거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 봉쇄주의, 내방주의, 무교육주의 상태에 있었다면, 여성교육과 그 결과물인 현모양처는 과거 유물의 청산이었다. 즉 구여성과 대비하여, 신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명의 수혜를 받은 여성이 현모양처였다. “舊를 버리고 新을 환영하여 먼저 그 자제로 하야금 신문명에 목욕하고 세계조류의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넷 습관을 속히 버리고 문명상에 진보”²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모양처는 결코 무식한 녀자의게는 무가망이오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²²⁾ 이러한 점에서, 당시 현모양처로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 모델에는 구시대의 여성, 즉 전통적인 여성과는 일별을 고하는 새로운 여성상의 이미지가 강하였다.²³⁾

결국 한국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 역시 식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서구적인 문명을 보편으로 만들고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자신들의 열등, 무능 그리고 허약함을 확인하였다. 서구적인 것을 문명이자 우월한 것으로, 조선의 것을 열등한 것으로 상정하여 스스로를 주변화시키는 방식이었다. 일본 자신 역시 스스로 문명의 전도사임을 자처하며 한국 지배에 대한 타당성의 논리를 구축하였다.²⁴⁾ 현모양처는 식민지적 조건에서, 문명화되었다고 인식된 서구 혹은 일본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그의 극복

20) 閔泳大, 「女子教育에 就하야」(二), 『每日申報』, 1918. 7. 14.
21) 金洛泳, 「오히려 기르는 방법」, 『태극학보』 제2호, 1906. 09. 24, 38쪽.
22) 『每日申報』, 崔海朝, 「思想의 改新과 女子教育」(二), 1919. 6. 17.
23) Hong, Yang-hee, 2008, “Debates about 'A Good Wife and Wise Mother' and Tradit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1-4,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45~46쪽.
24) 함동주, 2006,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한국식민론과 식민주의적 문명론, 『동양사연구』 94집, 177~178쪽.

을 위한 일환으로 그들의 것을 전유한 젠더론이었다.

II. 가족내 관계성의 근대적 전환: 현모양처론

앞에서 보았듯이, 현모양처는 과거 구여성과는 일별을 고한 근대교육의 수혜자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이해력을 겸비한 ‘신여성’이었다. 즉 ‘민족’과 ‘제국’ 안에서 작동되는 모더니티의 한 유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모양처론은 자신의 논리를 작동시키기 위해 유교적 여성관과의 차별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각시켰는지를, 여성의 가족 내 관계성의 초점 이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조선시대 여훈서와의 비교를 통해 그 관계성의 변화를 포착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한 여성이 가족들과 맺는 주요한 관계인 며느리, 아내, 어머니 등을 통해 현모양처론이 여성의 가족내 관계성 및 젠더 관계를 어떻게 재배치하였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1. 시부모와의 관계성: 며느리

유교 사회에서 최고의 도덕규범이 ‘효’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효는 여성에게도 최우선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덕목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최우선 적인 것은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그것보다도 며느리로서의 행위 규범이었다. 효는 며느리가 지켜야할 최고의 도덕률이었으며,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절

대 명령권을 가진 존재였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하늘과 같이 모시고, 매질을 하거나 꾸짖어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였다. 한마디로 시집간 여성, 즉 며느리의 행동 지표는 시부모의 의사였다. 심지어 혼인의 지속여부도 부부 간의 애정과 상관없이 시부모에 의해 결정될 정도였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얻는 것은 능히 효도를 잘함에 있으니 극진히 효도하지 않으면 며느리를 얻어서 무엇하리오. (중략) 시부모 모심은 그 높기가 하늘과 같으니 모름지기恭敬하고 恭遜히 받들되 자신의 나은 점을 의지하지 말며 매질을 하거나 꾸짖어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중략) 아들이 아내를 매우 마땅히 여기더라도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시면 며느리를 내보내야 하고 아들이 아내를 마땅히 여기지 않더라도 부모가 ‘나를 잘 섬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들은 부부의 예를 행하여 몸이 다할 때까지 쇠하지 말아야 한다.²⁵⁾

그러나 현모양처론에서 위와 같은 고부관계는 부정되었다. 아니 오히려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현모양처’란 용어가 나타내듯이 대체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만이 강조될 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문명화 담론의 중심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비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個性에 自覺이 있는 女性이면 絶對命令權을 家庭에서 가지고 잇는 姑와 絶對服從하지 안이하면 아니될 子婦가 (중략) 互相間에 人格을 尊重하고 어느 程度의 自由保障이 잇는 國家生活에서도 (중략) 姑는 全然 婦의 人格 존중에는 생각도 맞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잇는 普通의 家庭이니 이러한 家庭에서 엇지 마암으로 화평한 생활이 姑婦間에 營爲되기를

25) 昭惠王后, 『內訓』, 孝親章.

바라리오.²⁶⁾

여성의 인격, 가정 내 여성의 권위를 강조하는 현모양처론에서 효는 여성이 지녀야 할 최고의 가치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자애 없이 “며누리 더러만 효를 하라는 것은 인정을 통치 못하고 인심을 벗어난 무리한 어리석은 일이다.”, “며누리는 결코 시어머니의 몸종이 아니다. 시어머니의 기계도 아니다. 아들의 안해로서 아들과 한 가정을 이루고 그 家庭의 主婦로서 상당한 權威를 갖춘 사람이다.”²⁷⁾ 하여 오직 ‘효’만을 매개로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절대적 상명하복 관계는 사실상 부정되고 있었다.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남편과의 관계성: 아내

유교적 모랄에서 시부모와 더불어 ‘하늘’인 남편은 여성에게 절대적인 권위의 대상이었다. 부부 사이에도 상명하복 관계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하늘인지라, 아내는 마땅히 禮로써 恭敬하여 섬기되 아버지를 대하듯 해야 한다. 몸을 낮추고 뜻을 나직히 하며, 거짓으로 존대하지 말고, 오로지 順從할 뿐 감히 그 뜻을 거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²⁸⁾ 심지어 “오직 순종만 할 뿐, 대나무 채찍으로 맞아도 원망해서는 안되는”²⁹⁾ 것이 여성의 남편에 대한 본분이었다. 이와 같은 부부의 관계성은 부부 사이의 성윤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지극히 불평등한 일방통

26) 『東亞日報』, 1926. 5. 21, 「舊家族制度의 缺陷」.

27) 『東亞日報』, 1939. 7. 12, 李萬珪, 「시모와 며느리 - 두사람 각각의 개인문제」.

28) 昭惠王后, 『內訓』, 夫婦章.

29) 昭惠王后, 『內訓』, 夫婦章.

행이었다.

무릇 남자는 다시 장가든다는 법이 있으나 여자는 다시 시집간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므로 남편은 하늘이다. 하늘로부터 본래 도망칠 수 없는 것이니 따라서 남편으로부터도 도망칠 수 없는 것이다. 한사람에게서 뜻을 얻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마침이요 한사람에게서 뜻을 잃어도 그것으로 영원히 마치는 것이다.³⁰⁾

‘烈女不更二夫’로 집약되듯이, 한번 혼인하면 남편이 죽더라도 평생 수절할 것을 강요받았다. 마음은 물론 첩을 용인하였기 때문에 결혼한 남성에게 특별한 성윤리란 존재하지 않았다. 처는 남편이 백첩을 두더라도 못 본 척을 하여야 하고 성낸 기색을 드러낼 수 없으며, 더욱 공경하여야 하였다.³¹⁾ 더욱이 결혼한 여자는 남편과의 사별 이후에도 재혼을 할 수가 없었다. 한번 혼인하면 남편이 죽더라도 평생 수절하는 것이 유교 사회의 여성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부의 관계성은 성별 역할분담론 이라기 보다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도덕규범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에 반해, 현모양처론은 부부사이의 상명하복이나 비인격적인 관계를 거부한다. 남성에게 직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모양처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여성 고유의 직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국의 장래 운명을 짊어질 2세 국민 양성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여성의 역할은 결코 천한 역할이나 노예적 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일대 사명이었다. 나아가 이는 동등한 부부관계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현모와 양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남녀동등 부부 상대이라야 비로소 현모와 양처를 완전히 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30) 昭惠王后, 『內訓』, 夫婦章.

31) 송시열, 「남편 섬기는 도리라」, 『계녀서』.

부부가 대등하고 아내가 견식이 있어야, 남편의 사업을 격려하고 충고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만 하는 아내는 결코 ‘양처’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급한 안해요 가장 한심한 부인”이었다.³²⁾

다른 한편 현모양처론에서는 결혼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자유연애,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부부사이의 인격적 관계,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을 추구하는 현상은 정조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연애결혼이 부부 모두에게 ‘정조관념과 의무의 균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애정을 기반으로 한 결혼이어야 부부 쌍방이 정조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일부일처제에 기반하여 여성의 정조는 물론 기혼 남성의 정조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또한 명목상일지라도 인격적 평등에 근거하였다는 바로 그 점 역시 “남녀에게 정조관념의 균등이 여실하게 실현되어야 한다”³³⁾는 논의를 가능케 하였다. 이 중 남녀동권의 관점에서 ‘남자정조론’을 주창하는 사람도 있었다. “현대에 있어서 여자에게 정조직하기를 강요하는 것과가티 남자에게도 정조직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피차 신의상으로 또는 남녀동권의 의미에서 당연히 그래야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³⁴⁾ 정조가 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기 위한 논의였던 반면, 담론상의 논의에 불과할지라도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남녀 쌍방의 정조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³⁵⁾

32) 박경수, 「새로운 賢母良妻란 무엇인가-특히 賢母主義에 대하여-」, 『실생활』 5-9, 1934. 9. 獎産社, 14~15쪽.

33) 貞操觀念과 義務의 均等, 『每日申報』, 1926. 8. 12.

34) 誌上貞操問題論議-柳光烈, ‘男子貞操論’, 『신여성』 6권 3호, 1932. 3월호, 24쪽.

35) 물론 이것은 담론상의 논의이다. 당시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성(sexuality)에 관한 사항은 젠더 불평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간통죄는 여성 일방, 즉 처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유부(有夫)의 부(婦)가 간통(姦通)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상간자(相姦者) 역시 같다”는 일본 형법 제183조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로 인해 기혼 여성의 상간 행위는 간통죄에 의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민법상 이혼사유가 되었다. 이에 비해 기혼 남성의

3. 자식과의 관계성: 어머니

유교사회에서 여성은 자녀의 교육자로서 보다는 아들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우선시되었다. 어머니의 가장 큰 본분은 가계를 이을 건강하고 우수한 장자를 생산하여 ‘입신양명’하게 하는 것이었다. 조상제사를 받들고 가문을 빛내는 것이 ‘효’의 으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효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식의 양육과 교육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일임된 것은 아니었다. 즉 ‘딸자식은 어머니가 가르치고 아들자식은 아버지가 가르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 관행이었고, 남성 가장은 아들 교육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남자아이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조부나 부친과 생활하며, 그들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전수받았다. 미래의 성인 남성으로서, 가부장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이다. 특히 집안의 가풍이나 가도에 대한 초보적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7세 정도가 되면 남성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을 받았다.³⁶⁾ 16세기 명문 사족 출신인 이문건(李文楗) 역시 병약한 아들을 대신해 집안의 가계계승자인 손자 교육에 적극 관여하고 있었다.³⁷⁾ 출생부터 성인

혼의 관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기혼 여성과 상간한 남성만이 간통죄에 의해 처벌받았다. 간통죄의 성립은 타인의 혼인상의 권리인 부권(夫權) 침해에 대한 법적인 제재였고, 기혼 여성의 성은 부(夫)에 속한 것이었다(홍양희, 2007, 「식민지시기 가족 관습법과 젠더 질서」, 『한국여성학』 23권 4호, 98쪽).

36) 정낙찬 등, 2000, 『한국의 전통교육』, 대구: 영남대출판부, 32~33쪽.

37) 이문건(1494-1567)은 당시 명문 거족의 일원으로 사간원 정언으로 관직생활을 하였다. 41세부터 73세로 죽기 수개월 전까지 쓴 『묵재일기(默齋日記)』의 필자로 유명하다. 그는 손자교육을 직접 담당하였는데, 그의 아들 온(溫)이 병약한데다 일찍 사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현영, 2001, 16세기 한 양반의 일상과 제지사족-『묵재일기』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 18, 75쪽).

이 될 때까지 손자의 성장 과정을 시로 쓴 『양아록(養兒錄)』은 그의 육아 일기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현모양처의 젠더론은 남성을 자녀교육의 주체에서 배제시켰다. 왜냐하면 남성의 활동공간은 집안이 아니라 사회라는 이른바 공적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의 담당자이자 자녀교육자의 역할은 전적으로 여성, 즉 어머니의 책임이 되었다. 일국의 장래 운명을 짊어질 국민을 양성하는 것은 어머니였고, 이와 같은 어머니의 역할은 국가 사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다. 자녀양육과 교육을 어머니에게 사실상 전담시키는 젠더 관계의 전환은 현모양처 모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었던 것이다.

자녀교육이 여성에게 일임됨에 따라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교화의 대상이기는 하였지만, 직접적인 교육대상이 아니었다. 절대 순종적인 며느리와 아내, 자녀 생산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상, 여성이 굳이 교육받을 이유는 없었다. 여성이 글을 읽어 학문을 쌓는 것은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해롭다는 인식조차 존재하였다. 그런 반면, 현모양처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여성의 지식습득을 중요시 하였다. 자녀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맡은 여성은 더 이상 무식해서는 안되는, 다음 세대의 국민을 육성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모양처는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어머니로서의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사실상 전담하는 ‘전업주부’로서의 여성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Ⅲ. 현모양처라는 욕망과 신여성의 분열적 위치

현모양처라는 여성의 역할이 기반하고 있는 모더니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필요조건으로 하였다. 하나가 부부와 그의 자녀로 이루어진 단혼 소가족이라면, 다른 하나는 연애결혼에 기반한 애정적 가족이 그것이다. 이는 이른바 ‘스위트 홈’으로 명명되는 ‘가정’의 모습이였다. 이 장에서는 현모양처를 열망하는 신여성들이 추구하는 가정의 조건들이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어떠한 파열음을 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현모양처와 ‘스위트 홈’

현모양처는 여성이 가족 내에서 맺고 있는 관계성의 중심이 어머니와 아내로 이동한 것이었다. 중심 이동의 전제이자 필요조건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로만 이루어진 ‘가정’이었다. 이러한 가정 모델은 조선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를 타파하고 소가족제도를 수립하자는 논의로 이어졌다. 이 역시 조선의 과거 가족제도를 열등하고 낡은 것으로 상정하는 문명화 논리의 연장이었다. 다음의 글들은 대가족제도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大家族主義 下에 잇어서의 生活哲學 生活道德의 唯一한 行動綱領은 尙
「孝」라는 한글자이었다. 大家族制度란 農村을 中心으로 하는 部落生活에
有用한 것으로 一民族 또는 一國家를 生活의 一範圍로 하는 現代에 와서는
有用하다기 보다도 도리혀 社會發展에 一障害가 되고 잇는 것이다. (중략)
식어머니와 며누리는 水火不相容이라는 事實은 (중략) 한 家庭 안에
主婦가 二人以上이 되려고 하는 不合理下에서 衝突이 생기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중략) 우리가 民族의 繁榮을 꾀한다고 하면 孝보다도 信을
더 존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중략) 大家族制를 改良하야 夫婦와

그 子女로만 구성하는 小家族制度를 樹立하기를 主唱한다. 그리하여 저마다 幸福스런 小家庭을 가지는 自由스런 個人들을 信과 義와 協助로 목거노하서 民族的으로의 새로운 進取와 새로운 活躍을 試하게 되는 날이 速히 이르기를 바라마지 아니한다.³⁸⁾

대가족제도는 첫째, 가정불화와 가정비극의 원인이 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물과 불 같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일 뿐더러, 가정에 주부가 두 명인 경우에는 서로 간에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낡은 도덕’인 며느리에 대한 잔혹한 학대, 종속적이고 노예적 천시를 하는 불합리한 관계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³⁹⁾ 둘째, 더욱이 민족의 번영과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그것은 농업사회의 유물이어서 민족과 국가를 생활 단위로 하는 현대사회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도덕률도 효가 아닌 신의로 대체되어야 함이 주장되었다. “케케묵은 가정의 도덕을 파괴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현대적인 도덕을 수립하고 가정의 비극을 가져오는 대가족제도를 깨뜨리고 행복과 만족만을 가져올 완전한 가정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⁰⁾ ‘현대적인 도덕’에 기반을 둔 ‘자녀와 부부 분위의 가정’,⁴¹⁾ 이것이 바로 대치되어야 할 새로운 가정상이었다.

그렇다면 민족의 발전과 소가족제도에 기반한 가정은 어떠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한 것이었다. 가정불화가 없는 원만한 가정을 통해서만 국가와 민족,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정은 “싸움터(戰場)와 가튼 회사(會社)에 나아가 붓을 잡고 혹은 풀기 어려운 문제로 머리를 압흐게 하고 또는 동

38) 『家族制度와 가정家庭制度 - 小家庭制度를 樹立하자』, 『新東亞』, 1932. 5, 2~3쪽.

39) 牛灘生, 『現代의 主婦가 되라』, 『新東亞』, 1932. 10, 128쪽.

40) 牛灘生, 『現代의 主婦가 되라』, 『新東亞』, 1932. 10, 128쪽.

41) 『새로운 가정을 맨들라는 이들에게-지금 가정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나』(二), 『東亞日報』, 1930. 1. 6.

료와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여 괴로우신 남편”이 돌아오는 집이었다.⁴²⁾ 이런 집에서, 가정이 험난한 사회로부터 분리된, 남편과 가족들의 피난처이자 휴식처라는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人才들의 運命을 한손에 쥐인 (중략) 主婦가 賢明할 때 主婦가 伶俐할 때 主婦가 意識的으로 責任을 自覺할 때에야 그 家庭에는 光明이 오는 것이다. (중략) 現代의 主婦들은 지금의 朝鮮 家庭을 改革하여 一新할 必要가 있다. (중략) 主婦여! 家庭을 한 家族의 避亂所나 樂園이 되게 하는 同時에 社會를 위하여 事業하는 實驗室이 되게 하며 더 나아가 社會問題를 冷靜히 解決케 하는 研究室이 되게 하라. (중략) 현재에 잇서서 複雜多端한 박 것일을 하는 (중략) 男便들로 賃단일이나 女子할 일에서 버서나서 自己의 事業에 專心專力하게 (중략) 主婦의 天職을 自覺하고 家庭의 平和를 생각 하는데서 心理的으로나 精神的으로 獨立된 見地에서 할 것이다.⁴³⁾

당시 논의에 따르면, 가정은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남편이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장소였다. 밖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고통을 받고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안해의 따뜻한 정과 부들어온 말로 마저 들이는 위로를 받으면 하루 동안의 모든 고통과 모든 불평을 그만 이저버리고 이에 일가단란의 낙”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⁴⁴⁾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의 국민을 양성하는 곳이었다. 그 주체는 주부였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주부는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현재의 인재들인 남편과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막중한 임무의 수행자였다. 이것이 남성이

42) 松園女士, 「저녁에 돌아오는 남편을 어떻게 마즐」, 『婦人』 창간호, 1922. 6, 46쪽.

43) 牛灘生, 「現代의 主婦가 되라」, 『新東亞』, 1932. 10, 128~29쪽.

44) 김병준, 「밖그로부터 돌아오는 남편을 기분마음으로써 위로하라」, 『婦人』 1-2, 1922. 7, 9~14쪽.

책임지고 있는 사회생활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이었다.

가정이 휴식의 장소이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해야만 하였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민족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남편이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양성이란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 가정을 통해 사회,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화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명하고 영리한 주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영위되는 행복한 가정이 바로 현모양처의 가정이었다.

서구적 근대 가정론의 핵심적 키워드인 사랑이 충만한 가정, 즉 ‘스위트 홈’은 가정의 주인으로 명명되는 주부에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노동을 요구하였다. 그 하나가 가사노동이라면, 다른 하나는 바로 가족에 대한 감정 노동이었다. 특히 후자의 것은 가정이 사회와 엄격히 분리되고, 가족에 대한 정서적 역할을 하는 안식처로 그 의미가 부여된 데서 기인한 귀결이었다. 이러한 감정 노동은 본질적으로 남성과는 다른 여성 특유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남녀는 그 성(性)이 다름과 같이 천분과 소질에 있어서도 또 다른 것이다. 남성이 경제상 생산적 활동에 적당하다고 하면 녀성은 자기 특유의 섬세한 고르고 짜인 감정을 가지고 이상의 자실구레한 문제를 정돈하고 처리하기에 적의하다. (중략) 녀성의 직분은 생활을 정화하며 미화하며 신성화하는 존귀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자칫하면 횡포하기 쉬운 남성에게 사랑의 진의를 가리켜 주고 다음시대를 질머진 아동에게 원만한 습성을 길러준은 녀성 특유의 힘이다. 참말 현모양처란 말할 것도 없이 이 힘을 발휘해서 가정을 사랑의 전당으로 만들고 신성한 인생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45)

가정은 사랑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되는 “사랑의 전당”이었다. 심지어 “사랑이 없는 가정은 악”⁴⁶⁾이라고 간주될 정도였다. 가족들은 이 가정 안에서 서로간의 친밀성과 애정을 토대로 이른바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정서적 만족을 얻는다. 그리고 여성 특유의 감정이라 여겨지는, 즉 섬세함, 따뜻함, 부드러움 등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것들이 여성들의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른바 여성을 정서적인 존재로 본질화하는 하나의 신화를 통해 유지되는 것이었다. 이는 가족들은 가정에서 처와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인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규범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연애결혼”이 스위트 홈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가능케 하였다. 사랑하는 남편과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는, 즉 사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정에서 여성은 진정한 의미의 현모양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20년대 지구적으로 고조되었던 연애이상주의 역시 “연애”를 결혼의 제일의 조건으로 만드는 주요한 모티브였다. 조선 사회가 체험하고 있던 모더니티 중 하나였던 연애는 다양한 계층들에 의해 전유되었고, 여기에서 현모양처론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결혼의 첫째 요소는 연애 그것 이외다. 연애가 없이 결혼을 연상할 수 없습니다. 엘렌 케이는 그의 『연애와 결혼』에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결혼이든지 거기에 연애가 있으면 그것을 도덕일거다. 아무런 법률상 수속을 다해서 성립된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연애가 없으면 그것은 부도덕일다”하고 다시 말하기를 “정식으로 결혼하고 아니함을 물

45) 金樂泉, 「賢母良妻란 무엇인가.-忍從屈從의 뜻이 아니다.」, 『실생활』 3-8, 1932. 8, 獎産社, 16쪽.

46) 주요섭, 「諸難關을 超越하는 愛情問題」, 『신여성』 제7권 2호, 1933. 2, 17쪽.

론하고 아버지로 또는 어머니로의 책임을 다하면 그것은 항상 신성하다” 여기에다가 나는 한마디를 더 보태서 이렇게 말하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고 아니함을 물론하고 그 두 남녀 사이에 영육이 일치하는 참된 연애가 있고 또 그 연애가 계속된다면 그 결혼은 항상 참된 결혼이요 신성한 것이 외다”라고 말하렵니다.⁴⁷⁾

“영육이 일치”하는 참된 연애에 기반한 것이 참된 결혼이고 신성하다는 모성주의 페미니스트 엘렌 케이(Ellen Key)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사상이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엘렌 케이의 연애이상주의를 심화한 하쿠손의 이상적 연애론 역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일종의 성전과 같이 애독되고 널리 회자되었다.⁴⁸⁾ 이들의 연애론은 실질적으로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결혼과 가족으로 수렴되었다.⁴⁹⁾ 물론 당시 신여성들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일정 정도의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대다수의 신여성들은 자유연애하고 자유결혼하여 진정한 의미의 현모양처, 외부의 강제에 의한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진심에서 나오는 “참된 현모양처”가 되고, “좋은 배우자”를 얻어 이상적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들 “최고의 기원”이었다.⁵⁰⁾

2. 신여성의 분열적 위치

이상적 가정을 가지기 위한 신여성들의 욕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47) 주요섭, 「결혼에 요하는 삼대 조건」, 『신여성』 2-5, 1924. 5, 16쪽.

48) 구리야가와 하쿠손(廚川白村)의 『近代の戀愛觀』(1922, 改造社)은 1920년대 일본에 연애붐을 일으킨 일종의 베스트셀러였다(이승신, 2006, 「구리야가와 하쿠손(廚川白村) 『근대의 연애관』의 수용」, 『일본학보』 69집, 371~372쪽).

49) 서지영, 2008, 「계약과 실험, 충돌과 모순: 1920-30년대 연애의 장」, 『여성문학연구』 19집, 152~154쪽.

50) 주요섭, 「신여성과 구여성의 행로」, 『신여성』 7-1, 1933. 1, 32~34쪽.

가지의 조건이 모두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였다. 하나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었다. 경성에 있는 어느 여학교 교사의 인터뷰에 의하면 중등학교에 다니는 여성들이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바라는 남편의 성격

그리고 남편으로 바라는 성격은 사내다운사내 침착한산애 친절한 산애가 데일만코 그다음에는 남녀동등권을 인정하는 산애 가정생활에는 안해의 의견을 존중하는 산애를 바란다는 사람도있고 사도는 내가 변변치못하닛가 남의축에 과히 사바지지안는산애면 만족하다고 겸손하는사람도있고 혼인전에 다른녀자와관계한산애 축첩하는산애는실타고 대담하게쓰는사람도있난대 대개로는 산애다운산애 침착한산애 친절한산애를 바라는모양입니다.

직업과 재산과 주택

남편의직업으로 바라는 것은 결코한결갓지안흐나 데일만히바라는 것이 교육가와실업가요 고다음에 문학가 사업가요 의사나 공업가는 적은편이요 미술가나 음악가는 극히 적은편인것을보면 지금 녀학생들에 바람에 사되엇느니 허영이만호니하여도 학교에서 공부하는동안에는 진실하게 생각하는 모양갓습니다. (후략)⁵¹⁾

당시 신여성들이 바라는 남성들은 대부분이 교육자나 실업가 등 근대적 직업군에 속하는 남성들이었다. 특히 남편의 직업은 신여성들이 가정의 주부이자 현모양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식민지시기 가정탐방기를 통해 볼 때 소위 신가정 남편의 직업은 주로 교사, 기자, 문인, 의사, 예술인, 은행가, 변호사,

51) 京城某女學校 教師談, 『신여성』 제2권 제5호 1924. 5, 43~44쪽.

종교인 등이었다. 아내는 여기자, 여교사, 피아니스트, 무용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주부였다.⁵²⁾ 즉 신가정의 현모양처는 남편이 봉급생활자로서 근대적 직업에 종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물적인 토대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신여성들의 결혼 상대자가 될 만한 남편감을 구하기란 거의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한 개의 새로운 도덕이 수립되었으니 그것이 곧 무엇이나 하면 현모양처주의”⁵³⁾라고 하듯이, 서구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러 ‘근대가족’⁵⁴⁾의 형태로 재편되었고, 현모양처는 부르조아 가정론에 기반한 서구의 전업주부 모델이었다. 그리고 이것의 동아시아적 번역어가 현모양처였다. 자본주의적 산업사회가 아닌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봉급생활자를 찾기란 여간 쉽지 않았다. 하급관료나 근대적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여성들에게 전업주부로서 그리고 현모양처로서 살아갈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식 있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남성층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그다지 성장해 있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나마 있다손 치더라도 조혼으로 기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른 하나는 시부모와의 고리를 단절하고 부부 중심의 단혼 소가족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결혼한 신여성이 시부모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그리 쉽지는 않았다. 구술과 가장문서를 통해 어느 양반 가족의 근대

52) 전미경, 2007, 「1920-30년대 가정탐방기를 통해 본 신가정」, 『가족과 문화』 19-4, 110쪽.

53) 洪曉民, 「現代女性の浮動性 - 所謂 ‘모더니즘’의 片鱗」, 『新東亞』, 1931. 12.

54) 오치아이는 근대가족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가내영역과 공공영역의 분리 2) 가족성원의 강한 정서적 관계 3) 자녀중심주의 4) 남자는 공적 영역, 여자는 사적 영역이라는 성별분업 5) 가족의 집단성 강화 6) 사교의 쇠퇴 7) 비친족의 배제 8) 핵가족(落合惠美子, 『近代家族とフェミニズム』, 勁草書房, 18쪽).

경험을 다룬 한 연구는 식민지 조선에서 결혼한 신여성의 실상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일단을 보여준다.⁵⁵⁾ 이 연구에 의하면, 식민지시기 평택에서 서울로 유학하여 신여성으로 성장한 여성이 결혼하여 직면한 현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가족의 굴레에 얽매인 ‘구여성’의 삶이었다. 가족관계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녀의 총명함은 ‘훌륭한 며느리’로서만 발휘되었으며, 신여성들이 주창한 부부 중심의 가족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나마 신식여성으로서 그녀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충무로의 히라다 백화점에서 당시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커피를 사다 놓고 마신다거나, 오빠가 선물한 반팔 원피스를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입고 뒤안을 배회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신여성들이 스위트 홈을 이루기 위한 두 요건 모두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현모양처가 꿈꾸는 이상적 가정이 작동하기 위한 시공간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남성층은 성장해 있지 않았고, 그나마 결혼을 한 경우에도 시부모와의 고리를 끊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대부분이 농민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현모양처와 스위트 홈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선행된 모더니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욕망의 일종이었다.

女性解放을 부르짖고 女性の 社會的 進出을 論하는 時代라고 할지라도 女子의 根本的 慾望 또는 祈願은 賢母良妻됨에 있다. 勿論 그 內容에 變化는 있겠지마는 女性の 絶對多數는 누가 強制하지 안트라도 저 스스로가 賢母良妻가 되고 심혼 本能的 衝動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런

55) 김영미, 2007, 구술과 가장문서를 통해본 양반가 4대의 가족 이야기, 『역사비평』 통권 79호.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가족은 400년째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 살고 있는 여흥 민씨 장령공파 종손가 4대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907년에 태어나 1969년에 세상을 떠난 분으로 이 이야기는 그의 며느리의 구술에 의한 것이다.

데 여기에 新女性에게는 여러가지 苦悶이 있다. 僞善 그들은 教育者를 잘 못 맞았기 때문에 家庭的 教育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根本精神은 언제나 「스윗홈」을 떠나지 못하면서도 그들의 氣分은 恒常浮動되어 있다. 그래서 시집간 후에도 그들이 理想하는 賢母良妻는 못되고 오직 苦悶과 悲嘆의 主人公이 되고 만다.⁵⁶⁾

자유연애와 스위트 홈을 통해 현모양처가 되고자 하는 신여성들의 욕망, 그 이상과 일상의 괴리는 신여성들의 자기 분열적인 현상을 수반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원하는 배우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결혼 후 시부모와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점 등은 독신이나 만혼을 초래하거나 혹은 유부남과의 사랑 끝에 자살로 귀결되기도 하였다. 일부 지식인 남성들 중에는 구식 여성을 부인으로 두고 부모 중심의 구식가정을 유지하되, 실제 삶에서는 신여성과 애정 중심적 신식가정을 꾸리는 전통과 근대의 이중적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⁵⁷⁾ 그러한 신여성은 일명 “첩”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924년 『신여성』 4월호에는 고등여학교 정도를 졸업하고 상당한 지식과 자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첩이 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주목된다.⁵⁸⁾ 나아가 1933년 『신여성』 2월호에는 이러한 문제를 특집기사로 다루기까지 하였다. 「제2부인 문제 특집」이 그것이다. 당시 특집 기사에서 기존에 “첩”으로 불리던 여성들을 “제2부인”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은 근대적 연애관계와 구래의 인습이 부딪힌 결과 첩이 된 신여성의 문제를 이름을 바꾸어 해결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56) 주요섭, 「신여성과 구녀성의 행로」, 『新女性』, 1933. 1, 32~34쪽.

57) 김혜경, 2006,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303쪽.

58) 이 기사에서는 첩이 되는 경우를 5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1) 속아서 연애하다가 첩이 되는 경우, 2) 유혹에 빠져 첩이 되는 경우, 3) 타락의 끝에 첩이 되는 경우, 4) 허영으로 첩이 되는 경우, 5) 생활난으로 첩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여 학교를 졸업하고 첩이 되어 가는 사람들, 『신여성』, 1924. 4, 48~55쪽).

이는 당시의 근대적 관계가 새롭게 창출되는 역사적 국면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복잡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⁵⁹⁾ 결국 식민지 조선의 시공간에서 첩/제2부인이 된 신여성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서구적 모더니티가 충돌하는 지점이었던 것이다.

IV. 모더니티로서 본질주의: 현모양처의 ‘전통’화

사랑에 기반한 연애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스위트 홈, 이것이 신여성들에게 주는 매력은 자못 강렬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라는 것은 사랑과 연애가 법률혼으로, 스위트 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은 상당히 허약하였다. 결국 근대적 연애 결혼의 추구는 일부일처제에서 작동하는 현모양처론을 전복시키는 역설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현모양처론자들은 대항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이러한 분열상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수단 중에 하나는 ‘신여성’이라는 집단을 ‘나쁜 여성’으로 기표화 하는 작업이었다.⁶⁰⁾ 이제 전통적인 결혼제도나 ‘구가정’을 거부하는 신여성은 조롱과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⁶¹⁾ 특히 신여성들이 서구적 풍조를 지향하는 것은 사회문제시 되었다. 현모양처를 양성하려는 일본 제국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에게도 이러한 풍조는 일종의 도전과도 같은 것이었다.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연애론과 신정조론은 사회

59) 정지영, 2006,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2부인’: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 22-4, 57쪽.

60) Hong, Yang-hee, 2008, “Debates about 'A Good Wife and Wise Mother' and Tradit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1-4,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52~55쪽.

61) 김혜경, 2006,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303쪽.

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고, 사회주의 사상은 조선의 독립과 계급 해방을 부르짖는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되기 어려운 세력이었다.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제2의 민족 구성원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신여성들의 행보는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다 할 수 있다.

소위 신여성이라고 하는 계급을 먼저 보라 한다. (중략) 근일 여자를 보면 거의 다 輕薄浮華하다. 구여성보다도 신여성에게 이러한 弊가 더 많은 것을 보겠다. 그 장신구의 미려, 소지품의 호사, 착용물의 綾羅, 이것이 대체 웬일이며, 그 일상생활의 번잡혼란이 웬일인지 安逸 娛樂 豪遊가 드뭇여 방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산보, 음악회, 활동사진관이 그네들의 생활의 전통이 된다. 그뿐인가 가정은 어더케 되든지, 가족은 어떤케 되든지 자신의 榮辱虛榮을 채우기 위하여는 아모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 (중략) 신여성들은 알기는 쥐꼬리만 맞게 안이되는데 아는 체하기는 태산과 가티 하는 것이니 조금도 겸양하는 미덕이 없다. 그리하여 구여성을 모멸하고 천시하여 마치 자신이 至尊至貴한 것가티 한다. (중략) 가정을 잘 처리하고 자녀를 교양함에 자기의 생명도 앎기지 않는 구여성에게 비하면 소위 신여성이란 그 밋칠 바를 모를 것이 안인가. (중략) 공연히 浮華放縱으로 남성을 낙구라고 하지 말고 실제와 진지한 태도로 자기 개척을 도모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⁶²⁾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여성상’은 우선, 허영과 사치의 대명사였다. 당시 “신여성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주제의 기사를 게재한 『신여성』에 의하면 이 토론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논자들이 허영심을 신여성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⁶³⁾ “짧은 치마에 뽀족구두를 신고 허영에 가득 차,”⁶⁴⁾ 사치와 안일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신여성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62) 鄭秀日, 女子에 對한 是非-女子는 一種 娛樂物, 『별건곤』 제19호, 1929. 2. 1. 134쪽.

63) 요사히 新女性의 長處와 短處, 『신여성』 1925. 6·7, 38~43쪽.

생활을 누리기 위해, 아버지나 오빠 혹은 애인들을 쥐어짜기 때문에 “진실로 오늘날의 소위 대부분의 신여성들은” “남자의 노력의 댓가”를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도적년』 소리를 들어도 쌀만콸” “친박하기 짝이 없는 동물들”이라는⁶⁵⁾ 독설을 쏟아낸다. “신여성(!) 건방지고 거만하기는 천하무쌍”⁶⁶⁾, 이것이 당시 그들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였다.

이와 동시에 신여성은 창기와 같은 존재로 동일시되었다.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무분별하게 연애를 즐기며 ‘여자 냄새를 뿌리고’, ‘연애를 유희시’ 하며 ‘얕은 매력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성욕에만 열중하는 것’이 조선 지식인들이 쏟아내던 또 하나의 신여성에 대한 낙인이었다.⁶⁷⁾ 그들의 연애는 “안일을 조와하고 도덕덕 의식이 엄격하지 못하다”거나⁶⁸⁾ 관능적인 관계에 필요한 윤리 도덕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갈보나 창기와 거의 다름없다는 개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더욱이 양가의 부녀들도 창기의 흉내를 내니, 현재의 신여성계는 “학생, 부인, 여사무원의 구분은 물론 학생, 부인, 기생, 불량녀 등이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다.”⁶⁹⁾는 것이다. 그들에게 신여성들은 남자의 장식품 노리개였다.

오늘날의 신여성의 대부분은 거지반 지식계급의 인물로서 필요할 만한 지식이 없다. (중략) 런에 관계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관능적관계(官能的關係)의 윤리적의의(倫理的意義)를 생각하지 못하고 행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하여서는 갈보나 창기와 더부러 무엇이 다르다 하겠는가. 실로 네전의 조선여성들이 남자의 화초이웃함과 맛찬가지로 오늘날의 소위 신여성이라는 사람들도 남자의 화초—인생의 장식품 노리개란 말을 듣는

64) 유치진, 「예술가가 본 신여성(하)」, 『조선중앙일보』, 1936. 1. 10.
65) 八峰山人, 「今日の女性과 現代教育」, 『신여성』 1925. 6·7월호, 63~64쪽.
66) 現代女性의 惡趣味, 『삼천리』 제10권 제8호, 1938. 8. 1, 135쪽.
67) 요사히 新女性の 長處와 短處, 『신여성』 1925. 6·7월호, 39~40쪽.
68) 요사히 新女性の 長處와 短處, 『신여성』 1925. 6·7월호, 40쪽.
69) 鄭秀日, 女子에 對한 是非-女子는 一種 娛樂物, 『별건곤』 제19호, 1929. 2. 1. 134쪽.

것도 무리한 말이 아니겠다.⁷⁰⁾

위와 같은 낙인은 당연히 신여성은 가정 살림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살림을 하려는 의지도 없는 여성들이라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즉 “조선의 신여성은 너무도 가정에 등한한 것이 큰 결점”이며, “현모양처가 되어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태도”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⁷¹⁾ 김미리사는 “신녀 자하고 가티사는 사람의 가정을 가보면 모든 것이 정돈이 되지 못하고 소용없는 돈도 잘 씩니다.”⁷²⁾고 하여, 살림살이가 엉망이라는 점을 신여성의 단점으로 꼽고 있었다. 당시 향간에는 “신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하로에 설넝탕 두그릇을 먹는다”는 소리가 회자될 정도였다.

왜 그러냐하면 청춘부부가 새로 만나서 달콤한 꿈을 꾸고 돈푼이나 녀 녀할 적에는 양식집이나 풀낙어리고 드나들지만 어쩐 돈이 무제한하고 그 두사람의 행복을 위하여만 제공될 뉘가 잇겟슴닛가. 돈은 녀녀지 못한데다가 아츰에 늦잠을 자고 나니 속은 쓰리지만은 찬물에 손뉘키가 실으닛가 손쉽게 설넝탕을 주문한답니다. 먹고나서 얼굴에 粉쭈이나 부치고나면 자연이 새로 세시가 되닛가 그적에는 손을 마조 잡고 구경터나 공원가튼데로 산보를 단이다가 저녁 늦게나 집예를 들어가게 되닛가 어느 틈에 밥을 지어먹을 수 업고 또 손쉽게 설넝탕을 사다 먹는답니다. 그래서 하로에 설넝탕 두그릇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물론 신가정의 부류에 屬하는 者이랍니다.⁷³⁾

그나마 집에서 밥을 먹는 경우에도, “밥상에는 간도 맞지 안은 김치

70) 八峰山人, 『今日의 女性과 現代教育』, 『신여성』 1925. 6·7월호, 63쪽.

71) 咸大勳, 『朝鮮新女性論』, 『여성』, 제2권 2호, 1937. 2월호, 17-18쪽.

72) 요사히 新女性の 長處와 短處, 『신여성』 1925. 6·7월호, 43쪽.

73) 朴O熙, 無知의 苦痛과 설넝湯신세, 新舊家庭生活의 長點과 短點, 『별건곤』 제24호, 1929. 12. 1, 27쪽

깍뚜이”, “간쓰메’통”, 최고의 요리라고 해놓은 것도 “메고 단이는 장사에게 사노은 늙은 소고기를 길죽하게 썰은 데다가 『다마네기』를 곁드리고 왜간장 짙금 친 소위 ‘스끼야끼’라는 것”이 고작이었다.⁷⁴⁾ 그리하여 돈은 돈대로 쓰면서 생활은 저급한 것이 신여성의 가정생활이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한 잡지의 「新女性들은 男便의 밥과 옷을 지어본 적 잇는가? 업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목을 끈다.⁷⁵⁾ 답변자들은 장안의 내노라 하는 신여성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남성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에 의하면, 당시 신여성들은 직업상 바쁜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한 밥하고 의복 만드는 일을 거의 대부분이 손수하고 있었다. 현모양처론자인 허영숙은 물론, 소위 ‘신여성’의 대표주자인 김일엽 역시 이러한 일을 모두 자신들이 직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사거리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신여성’을 구성하고 있는 담론은 현실 그 자체를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상당부분 ‘만들어진 표상’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한다.

결국 신여성들은 맹목적으로 서구적 스타일을 추종하는 ‘모던병자’의 상징이 되어갔다. “외래식 화장을 하고 두발을 지지 洋머리를 만드는”, 무분별하게 서구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신여성을 의미했다. 신여성들에 의해 표상되는 소비문화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소비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모던”,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74) 朴O熙, 無知의 苦痛과 설녕湯신세, 新舊家庭生活의 長點과 短點, 『별건곤』 제24호, 1929. 12. 1, 29쪽.

75) 여기에는 신여성인 김일엽, 허영숙, 황신태, 이여성의 부인인 박경희, 동아일보기자 최의순, 심훈의 부인 안정옥, 홍기문의 부인 심은숙 등과 신여성들의 남편인 김경재(사회운동가), 김형원(중외일보 편집국장) 최용환(동아일보기자), 정석태(지성병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新女性들은 男便의 밥과 옷을 지어본 적 잇는가? 업는가?」, 『삼천리』 제17호, 1931. 7, 78~80쪽.

모던... ..모던 모던 모던의 세상이다. 미국이 그러하고 歐羅巴 각국이 그러하고 상해가 그러하고 가직한 일본이 그러하고 그운뎃에 조선도 그러하다. 모던! 모든 것이 모던이다. 모던걸 모던뽀-이 모던大臣 모던王子 모던哲學 모던科學 모던宗教 모던藝術 모던自殺 모던劇場 모던스타일 모던巡查 모던도적놈 모던雜誌 모던戀愛 모던建築 모던商店 모던妓生(조선에 限함)... .. 무제한이다. (중략) 모더니즘은 아머리카니즘을 모체로 하고 이 세상에 생겨난 일부 消費階級의 문화적 생활형식 (중략) 모더니즘의 문화는 과도기의 것이다. 그 享樂者들은 대체로 神經病者이며 變態性慾者인 文明病者들이다. 외국의 모더니즘이 病的의 것이라 하면 조선의 것은 畸形的의 것이다. (중략) 기초조건이 빈약한 조선에 잇서서는 외래의 潮流에 움직이여짐이 더 크다. (중략) 조선의 모던뽀이 모던걸이 외국의 그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배속에서 꼬락르 나는 거를 보아라.76)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자들을 정신병자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더욱이 식민지 조선이라는 가난한 경제상황에서, 소비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모던걸, 모던보이는 병적인 것을 넘어 기형적인 것이었다. 서양, 그중에서도 미국과 양키의 소비문화에 대한 적대감은 사회주의자에게서도 보인다. “여름철을 당하면 흰구스를 아니신어도 조코 배암 껌질가튼 이상야릇한 스커트를 아니입어도 좃타. 그리고 밤이면 밤 낮이면 낮으로 이른바 홈메드 양키부부가 되어서 전 경성이 좁다고 휘돌아단일 필요가 업다”고 하여, “현대류의 浮華輕薄한 물질文明”의 배격을 주창하였다.77)

이러한 흐름은 동시에 그동안 문명화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던 “옛것”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졌다. 특히 서구적 스타일을 추구하는 모던 보이, 모던 걸의 모습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통의 그

76) 壬寅生, 「모더니즘」, 『별건곤』 제25호, 1930. 1, 136~140쪽.

77) 林元根, 「인테리 女性에게」, 『만국부인』 제1호, 1932. 10. 1, 37쪽.

림자”, “통일된 미”를 찾으려 하는 노력은 ‘우리 것’에 대한 향수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외국 문화에 밀려 “우리의 고상하고도 그윽한 맛이 있는 조선예법(朝鮮禮法)”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나아가 신여성은 서양풍에 물들어 조선예법은 구여성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또는 당초에 관심도 없는 인간 군상이 되어⁷⁸⁾ 경멸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갔다.

조선일보사의 『여성』지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시부모 섬기는 도덕을 설교하기도 하였다.⁷⁹⁾ 1930년대 후반에는 부부의 애정 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 하는 며느리에 대한 역할, 혹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많이 낳고 더욱 건강하게 기를 수 있을까하는 모성적 역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다. 서구식 교양에서 이기주의적 의식을, 동양의 부덕에서 굴욕과 억압을 몰아내고 동양의 전통 특히 우리 조상의 교훈으로 다시 돌아와 조선여성의 새로운 교양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⁸⁰⁾ 『여성』의 사회부장 홍종인 역시 현재의 여성교육에는 무엇보다도 “재래의 아름다운 전통과 교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⁸¹⁾ 이것이 바로 “전통을 존중하는 이가 현모양처주의를 고집하는” 이유였다. 즉 “기성적 현모양처주의”에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적 차별”은 존중하면서, “그 성적 차별로부터 형화된 계급적 차별”만을 제거한 현모양처주의를 “이상적 여성도덕”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⁸²⁾

78) 허영순, 「듣기 거북한 말씨」, 『新家庭』, 1935. 5월호, 52~53쪽.

79) 김혜경, 2006,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97쪽.

80) 金午星, 「女性の 教養問題」, 『여성』, 5권 5호, 1940. 5월호.

81) 「좌담회: 고난속을 가는 여성-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여성』 4권 10호, 1939. 10월호, 24쪽.

82) 金樂泉, 「賢母良妻란 무엇인가-忍從屈從의 뜻이 아니다」, 『실생활』 3권7호, 1932. 7. 獎産社, 9~10쪽.

이제 현모양처는 문명화되고 계몽된 여성의 상징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조선의 ‘전통적 여성’의 모습으로 재현되기 시작한다. 현모양처를 ‘전통적’ 여성 도덕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은 현모양처의 모델을 ‘과거’에서 찾아 전형화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⁸³⁾ 자녀교육의 모성적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는 한편, 자식 교육의 전형적 모델을 전통 사회에서 찾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⁸⁴⁾ 부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칭호가 현모양처라는 한 필자는 이러한 여성으로 달성서씨의 중시조인 약봉(藥峰) 서성(徐滢)의 어머니, 이씨를 꼽고 있다.⁸⁵⁾ 그녀와 함께 신사임당, 강감찬과 김부식의 어머니, 이후재 부인, 황봉의 처, 충무공의 부인 등이 당시 논의되고 있던, 현모양처의 역할 규범을 구현하고 있던 역사적 인물이었다.⁸⁶⁾ 그 중에서도 특히 신사임당은 이러한 여성상을 구현하였던 최고의 선발주자였다.

사임당 전기에 있어서 잊어 안될 것이 어머니로서의 사임당이다. (중략)
울곡을 생각할 때 반드시 사임당을 생각않어서는 아니된다. 그의 어머니라

83) Hong, Yang-hee, 2008, “Debates about 'A Good Wife and Wise Mother' and Tradit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1-4,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54~55쪽.

84) 1932년 『동아일보』는 「어머니의 힘」이라는 기획 연재물을 통해 1월부터 외국 어머니의 모델을 연재한 후, 4월 21일부터는 조선 어머니의 모델을 연재하였다(모성애는 거룩하다, 『東亞日報』, 1939. 6. 23).

85) 沙雲生, 「盲目明視의 好賢母」, 『新家庭』 1935. 7월호, 74쪽.

86) 車相瓚, 「朝鮮史上의 名夫人列傳-其一 申師任堂」, 『家庭之友』 제2호 1937년 1월호.; 車相瓚, 「朝鮮史上의 名夫人列傳-其二 徐藥峰 母親 李氏」, 『家庭之友』 제3호 1937년 3월호.; 車相瓚, 「朝鮮史上의 名夫人列傳-其三 女流陰謀家 李厚載夫人」, 『家庭之友』 제4호 1937년 6월호.; 車相瓚, 「朝鮮史上의 名夫人列傳-其四 千古列女 西江船夫黃鳳의 妻」, 『家庭之友』 제5호 1937년 7월호.; 「용모보다도 지혜와 덕성 강감찬의 어머니」, 『家庭の友』 1938년 9월호, 22~23쪽.; 「세아들을 다 과거에 급제시킨 김부식의 어머니」, 『家庭の友』 1938년 9월호, 24~25쪽.; 「어머니독본-제6과 아동과 가정교육」, 『家庭の友』 1938년 9월호, 40~43쪽.; 「현부인이야기-1. 모든 고초와 어려움을 참고 내조의 힘을 쓴 충무공의 부인」, 『家庭の友』 1938년 10월호, 10~11쪽.; 「현부인 이야기 2. 정절을 지키고 시부모를 받드는 유진아의 부인」, 『家庭の友』 1938년 10월호, 12~13쪽.

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다. 아들을 가르친 교육가 현모(賢母)라는 자격으로 그러하다. 이와 같이 사임당은 율곡을 가르키었고 율곡밖에도 모다 훌륭한 아들을 길러내인 현모이다 교육가다. 사임당은 현모에 그치않았다. 학업에 있어 공소(空疎)한 자기 남편을 도아 평소에 실책이 없도록 하였다. (중략) 사임당이 현모양처로서 위대했다는 일단을 설명하는 것이다.⁸⁷⁾

시, 글씨, 그림 등 신사임당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는 글도 보이기는 하지만,⁸⁸⁾ 당시 신사임당이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그녀가 시와 그림에 능한, 찬란한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율곡이라는 조선시대의 정치가이자 대학자를 만들어낸 어머니 즉 현모였다는 점, 남편을 바른 길로 이끈 양처였다는 점에 있었다. 차상찬 역시 『가정지우』에 ‘조선 역사상 명부인 열전’이라는 글을 연재하면서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이 신사임당이였다.⁸⁹⁾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사임당과 같은 역사적 인물이 현모양처 여성상의 전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결국 현모양처라는 ‘전통’은 ‘모더니티에 의해’, ‘모더니티를 위한’, ‘모더니티로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맺음말

이 연구는 현모양처론이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작동하던 다양한 층위

87) 申龜鉉, 율곡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평전, 『여성』 제4권9호, 1939. 9월호, 78~79쪽.

88) 金瑗根, 「詩, 書, 畫, 三全의 師任堂申氏」 『新家庭』 1935. 9월호, 37~40쪽.

89) 車相瓚, 朝鮮史上의 名夫人列傳-其一 申師任堂, 『家庭之友』 제2호 1937년 1월호

의 모더니티들과의 경합, 그들과의 혼종을 통해 재구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현모양처론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의해 점령당한 근대적 시공간에서 구성된 역사적 현상으로 대상화하는 동시에, 식민지 조선에서 모더니티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유되었는지를 구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모더니티가 가진 양면성, 그리고 모더니티의 본질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말에 처음 등장한 ‘현모양처’ 담론은 제국의 헤게모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응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문명화로 명명되던 서구적 모더니티에 기원이 있는 그것은 처음부터 자기 완결적인 논리, 그 자체로 작동하기 보다는 식민지시기 내내 자신의 논리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역사적 과정을 함축하고 있었다. 특히 현모양처론의 대응 논리는 항상 여성해방론을 의식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사회주의나 자유주의, 그리고 엘렌 케이와 같은 모성주의 페미니스트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엘렌 케이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논의,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던 연애 열풍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즉 현모양처론의 논리는 당시 제반의 모더니티의 흐름들과 경합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1930년대 이후에는 문명화된 신여성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전통적’ 여성상으로 재현되었다. 당시 신여성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내는 과열음, 그리고 아시아에서 불기 시작한 반서구적 정서,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 등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흐름이었다. 현모양처 논리의 중심을 이루는 키워드인 부부 사이의 인격적 평등, 그에 기반한 직분, 연애를 통한 애정적 결혼, 스위트 홈 등은 식민지 조선에서 작동하고 있던 모더니티들의 흐름들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선택적으로 차용하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흐름들의 혼종을 통해 만들어진 모더니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모양처 논의는 일견 기존의 담론인 유교의 여성에 대한

관념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시부모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시부모 및 남편과 맺고 있던 비인격적인 상명하복적인 관계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켰다는 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인격적 평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 여성을 가정의 주인 혹은 여왕으로 등극시켰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한 가정인 ‘스위트 홈’은 신여성들이 자신을 현모양처로 구현시킬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다. 현모양처는 신분과 집안, 성별에 의해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회를 남성과 여성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분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대적 방식의 젠더론이었다. 전통시대 여성론은 도덕 규범의 성격이었지 성별 역할과 관련된 논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모양처라는 모더니티의 관철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여성들을 모성과 주부로 동질화하는 것이었다. 동질화의 논리는 성적 본질론에 기대는 것이 그 하나였다. 여성은 천성적으로 정서적인 감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여성을 정서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그렇지 않은 여성을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다른 하나는 여성은 과거부터 원래 그러하였다는 문화 본질주의이다. 즉 모더니티가 ‘전통’에 기대어 작동되는 방식이다. 과거라는 역사적 시간 속에 존재하던 사건을 현재로 불러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모더니티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질주의는 동질화의 전형에서 벗어난 인간을 끊임없이 타자화시키는 과업을 수행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현모양처라는 모더니티는 식민지 조선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의 본질화, 전통에 기대는 문화 본질주의를 핵심으로 하여 작동되고 있었다. 요컨대, 젠더 경계를 만들고 그것을 자연화하고 본질화하는 방식은 모더니티가 작동하는 주요한 입지점이자 국민/민족 국가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주요한 기반이었다.

Abstract

“Modernity” and the Idea of “Wise Mother and Good Wife” in the Colonial Korea

Hong, Yang-Hee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ereotypical image of ‘wise mother and good wife’ and its underlying logic were reconstructed through the complicated process of competition, negotiation, and mixture of diverse temporality/spatiality of modernities in colonial Korea. The main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expose the derivative nature of the “modernity”, to investigate the way how it was appropriated in the colonial Korea, and to disclose the duplicitous and essentialistic understanding of modernity.

The ideal of ‘wise mother and good wife’ has its origin in the West and has become popular as a national resistance against the western imperialism and colonialism in the early of 20C in Korea through the slow but persistent process of imitation, resistance, and reconstruction. Accordingly, the very modern nature of this ideal was a complex compound of the diverse currents of thoughts at the time. It functioned not only as an intrinsic duty of women but also an essential part of the indigenous Korean culture. This essentialistic reception of “wise mother and good wife” has made a continuing impacts on the various ways women deal with this stereotypical gender model which naturalizes and essentializes not only the gender role but also the paradigm of the nation-state and modernity.

Key Words : wise mother and good wife, modernity, gender, tradition,
essentialism.